

# 大學「國民倫理 I」 教科內容의 改善方案

許 正 勳\*

## 目 次

- I. 序 論
- II. 國民倫理 I 教科內容의 問題
- III. 國民倫理教育의 性格과 目的
- IV. 國民倫理 I 教科內容의 試案
- V. 結 論

## I. 序 論

國民倫理教育이 10여년 이상의 역사를 경과하면서 大學에서 강의되고 있지만, 아직도 存廢의 문제 및 學問的 動搖와 不安의 극복을 論議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國民倫理教育에 관심을 두고있는 學者들에 의하여 國民倫理教育이 당면하고 있는 現實的인 問題들 특히 教育의 性格과 目標, 教授方法, 教育施設 및 行政支援 등을 중심으로 그 해결을 위한 改善方案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國際情勢와 南北間의 正統性 대결 및 自體力量的 蓄積이라는 긴급한 課題를 해결하기 위해 大學에 國民倫理 教科目的 設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에 있다고 하더라도 國民倫理 教科目的 內容은 무엇으로 어떤 教育目標를 지향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學者마다 異論이 분분하다. 즉 國民倫理 教科目的 內容體系가 무엇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일관된 指針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大學마다 또는 擔當教授마다 서로 다른 內容을 가지고 教育에 임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國民倫理教育의 內容이 부분적으로 倫理學, 社

\* 師範大學 國民倫理 教育科 講師

會學, 政治學, 經濟學, 教育學 등의 學問領域과 맞닿고 있기 때문에 教科內容을 體系化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國民倫理教育이 既存學問들의 研究結果를 援用하는 것이 사실이라 하여도, 教科內容을 體系化하지 않은 채 방치해 둔다면 하나의 科目으로서 意義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國民倫理 教科 자체를 위해서 또한 大學教育의 效率化를 위해서도 國民倫理 教科內容의 體系化는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本稿는 바로 이러한 問題를 해결해보려고 시도한다. 즉 國民倫理 I의 教科內容의 試案을 具案하려고 한다. 물론 그러한 教科內容은 國民倫理教育 자체에 대한 問題를 해결하고 國民倫理教育의 性格과 目的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本稿는 첫째로 國民倫理教育을 실시하는 過程에서 나타난 問題點들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둘째로 國民倫理教育의 性格은 무엇이며 어떠한 目的을 추구하는가, 셋째로 國民倫理教育의 當面問題를 해결하고 그 性格과 目的에 맞는 國民倫理 I 教科內容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하는 세가지 問題를 고찰하려 한다.

## II . 國民倫理 I 教科內容의 問題

國民倫理 教科科目이 大學에 설정된지 이미 오래 되었지만, 그 教育이 과연 얼마만한 성과를 거두었는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기 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왜냐하면 國民倫理教育이 처음 시작될 때에 논란되었던 問題들이 여지껏 극복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그 問題들이란 첫째로 아직도 國民倫理教育에 대한 教授·學生 및 大學當局의 無誠意와 認識의 부족이라고 하는 점이다.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의 내세우는 이유들은 ① 國民倫理는 學問이 될 수 없다. ② 상식적 수준의 내용이며, 個別科目에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것들이다. ③ 執權體制의 정치적 도구로서 전체주의적 사상주입을 위한 官制科目이다 라고 하는 것들로 요약할 수 있다! 물

- 
- 1) 琴宣, “大學國民倫理教育의 效果分析 및 그 效率의 運營에 관한 研究,” 문교부 연구보고서, 사회과학계 7(1972), PP. 30 ~ 31.  
 權赫奈, “國民精神教育의 方向,” 國民倫理研究, 제 14호(1982.7), PP. 181 - 182.  
 柳炯鎭, “大學國民倫理教育에 관한 평가 연구” 국민윤리 세미나 발표(1971), P. 4.

### 大學「國民倫理 I」教科內容의 改善方案

론 이러한 認識不足의 要因들은 그동안 여러 학자들에 의해 충분히 論議되었으며 어느 정도는 이해를 시켰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國民倫理教育을 특정한 政府權力의 유지를 위한 어용적인 政策科目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따라서 國民倫理教育에 지대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일부 교수들은 國民倫理 講義를 꺼려하거나 또는 國民倫理와는 무관한 교수들에 의해서 講義時間을 메꾸어 나가는 無誠意한 태도를 보여왔던 것이다. 大學當局은 國民倫理教育을 실시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여 실제로 어떤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學生들에게 가르쳤고, 그것이 學生들의 價値觀 形成에나 現實問題의 認識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검토하거나 評價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態度는 國民倫理教育의 意義를 오히려 오해하도록 만들었다. 물론 이런 문제는 國民倫理教育의 性格과 目的을 제대로 認識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國民倫理教育의 性格과 目的은 措置하고서도 國民倫理教育이 문교부에서 또는 그밖의 政治人의 발상이 아니라 「大學教育研究委員會」의 委員들인 大學教授에 의해 그 必要性이 제기되었다<sup>2)</sup>는 事實은 어떤 政治的 利害關心에서 발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즉 그들은 國家發展과 國民福祉를 증진하기 위해 民族共同體라는 울타리 내에서 體制의 正當性에 대한 信念을 형성하는 教科目的의 必要性에 의해 國民倫理 科目을 설치한 것이다.

게다가 國民倫理教育은, 뒤에서 論議하겠지만, 그 性格上 어떤 특정의 政權을 옹호하거나 유지하는 데 그 目的이 있는 것이 아니다. 本來 教育은 國家의 存續과 發展에 봉사하며, 동시에 政治는 教育이라는 目標에 봉사하는 수단이 된다. 왜냐하면 政治의 目的은 護民, 養民, 教民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 教育이기 때문이다.<sup>3)</sup> 즉 政治를 國家의 獨立과 安全, 超黨派的으로 國家利益을 추구하고 수호하는 行爲로 이해할 때 教育은 政治로부터 無關性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教育이란 시대적 요청과 국가적 수요를 외면하면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며, 국가도 그 存續과 安定, 繁榮과 發展을 위해서는 教育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國家의 存續과 發展을 지향하는 國民倫理教育은 어느 政權에서만 강조되다가 다른 政權이 들어서면 폐지되는 一時 便法的인 科目이 아니다. 바로 이러한

2) 金泰吉, “大學國民倫理의 現況과 問題點,” 國民倫理研究, 제 1호 (1973.10), pp. 10 - 11.

3) 韓昇助, “國民倫理教育의 回顧와 展望,” 國民倫理研究, 제 10호 (1980.11), p. 129.

事實을 충분히 학생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教科內容의 구성은 당연한 요청이다. 그러나 國民倫理의 教科內容은 그와같이 구성되어 있지도 않고, 특히 國家의 存續과 發展의 精神의 指標가 될 수 있는 國家理念의 未定立으로 인하여 一貫性이 없으며 體系化되어 있지도 않다.

물론 國家理念의 定立이라는 課題는 解放 後부터 여러 學者들에 의해 단편적으로 주장되어 왔다.<sup>4)</sup> 더우기 6·25 라는 民族相殘의 비극적인 전쟁의 와중에서 제기된 南北間의 理念의 對立에서 파생된 正統性의 問題 및 統一問題로 인해 그 必要性은 더욱 증대되었다. 또한 그동안 추구해 온 고도의 經濟成長過程에 따른 여러가지의 부작용으로 인한 社會問題의 解決을 위해서도 國家 構成員들의 생활 속에 일관해서 흐르는 精神의 原理를 규명하고 정립하는 課題가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단편적이거나 그러한 國家理念의 定立을 위한 노력은 급격히 밀어닥친 서구 民主主義의 영향으로 인하여 體系적으로 연구되고 확산되지 못하고 단순히 當爲의 規範과 價値觀만을 강조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教育의 效果도 높일 수 없었다. 그 결과 현행 國民倫理教育은 國家理念 또는 民族精神의 原形質을 규명하거나 정립하지 않은 채, 단순히 人間과 社會 및 傳統에 대한 諸學者들의 學說을 소개하고 나열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있다.<sup>5)</sup> 더구나 政治, 社會, 經濟, 文化的으로 급변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教育은 國民의 價値觀, 民族의 正體感의 확립과 정확한 現實認識에 도움을 주기 보다는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

지금까지 國民倫理教科가 大學에 설치되면서 당시 문교부가 권장한 教授要目を 지침으로 수많은 교재들이 출판되었는데, 참고로 현재 大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國民倫理學會 編「國民倫理 I·II」의 구성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제 1 부 現代社會와 國民倫理

##### 제 1 장 國民倫理의 內容과 性格

##### 제 2 장 現代社會와 倫理

##### 제 3 장 韓國의 傳統과 思想

##### 제 4 장 經濟發展과 倫理

4) 朴容憲, “國民倫理學의 性格,” 國民倫理學, 韓國精神文化研究院 編 (博英社, 1983) P. 16.

5) 韓昇助, “國民倫理教育의 方向과 課題,” 學生理念指導 세미나 論文集 (1982.11) PP. 382f.

## 大學「國民倫理 I」教科內容의 改善方案

### 제 5 장 새 歷史創造와 韓國國民의 길

#### 제 2 부 現代政治와 國民倫理

##### 제 1 장 民主主義의 理念과 實際

##### 제 2 장 共產主義 理論과 實相

##### 제 3 장 現代社會思想의 諸類型

##### 제 4 장 北韓 共產主義의 特徵과 批判

##### 제 5 장 民族의 生存과 統一의 길

이것 이외에도 國民倫理 教材는 現在까지 무려 40여권이 나 출판되었지만 모두가 내용의 일관성이 없으며, 國民倫理教育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 요목들에 대한 공통점도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sup>6)</sup> 결과적으로 이러한 教科內容의 非體系性은 國民倫理教育을 담당하는 教授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해서 國民倫理 教科內容이 體系化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담당교수의 전공분야 이외의 內容을 연구, 소화하여 內容의 一貫性을 찾기에는 어려움이 큰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전공분야는 열심히 그리고 세심히 가르치지만, 그 이외의 內容은 자연 건성으로 지나칠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와같은 教科內容의 혼란과 多樣性 및 그에 따른 문제들은 우선적으로 國家理念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內容 자체의 一貫性을 찾기 어려운 까닭이기도 하지만, 그 내용이 政治教育과 道德教育의 內容을 포괄하면서 일관성있게 꾸며지지 않았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sup>7)</sup>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國民倫理가 단순히 일상생활에서 必要한 規範 또는 德目들만을 단편적으로 가르킨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닐 수 없다. 특히 現代와 같이 價値混亂과 葛藤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것이 옳다」라는 식의 教育은 이미 설득력을 상실한지 오래이다. 따라서 共同體全體의 합의된 理念이 부재인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개인 자신의 倫理的 判斷을 正當化시킬 수 있는 思考能力 즉 價値明瞭化 내지 價値分析의 能力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國民倫理教育의 內容은 德目이나 規範 그자체가 아니라 그 德目 또는 規範에 대한 論議 즉 思考過程인 것이다.<sup>8)</sup> 한 조사연구에 의하면,<sup>9)</sup>「國

6) 申亨澈, “國民倫理 教科의 教材分析에 관한 研究,” 國民倫理研究, 제 16호 (1983. 8), P. 323.

7) 柳炯鎭·姜煥國, 國民倫理教育概論, (형설출판사, 1982), P. 113.

8) 權赫奈, P. 18.

9) 柳炯鎭, “國民精神教育의 方法에 관한 研究,” 國民倫理研究, 제 15호 (1983.1) PP. 17 - 18.

民倫理 I·II의 교과내용중에 43%가 특수사실 및 과정에 관한 것들이며, 이것의 1/5에 해당하는 약 10% 정도만이 思考體系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대다수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특수사실 및 과정에 관한 것들은 다음 차원의 知的過程으로 학생을 유도해 줄 수 있도록 조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人類가 축적해 온 방대한 양의 知識을 어떻게 전부 가르칠 수 있느냐 하는 실제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방대한 양의 斷片知識을 가르치는 동안 새로 生成되는 世界에 관해서 생각하는 방식은 거의 교육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어떠한 교과에서도 중요한 것은 學習者로 하여금 質問形成을 위한 훈련된 방법을 구사할 수 있게 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관련시키는 論理的方法을 체득케 하고, 合理的인 探究方法 및 절차를 따를 수 있는 能力을 제공해 주는 일이다.<sup>10)</sup> 즉 教科內容의 體系는 물어야 할 質問과 얻어야 할 解答의 종류, 解答을 구하는 方法을 제시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國民倫理教育에서 의도하는 바도 실제 생활사태에서 어떤 規範을 기계적으로 또는 맹목적으로 따르는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合理的으로 思考하고 判斷하며 따지는 인간을 형성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國家共同體의 理念을 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國民倫理教育의 教科內容은 우선적으로 國民倫理에 대한 認識의 深化를 위한 방향에서, 그리고 國家理念의 정립을 위한 合理的 思考能力의 함양이라는 방향에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 III. 國民倫理教育의 性格과 目的

國民倫理教育의 教科內容을 구성하려고 한다면 우선 國民倫理教育의 性格과 目的을 명백히 규정해야 할 必要가 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한 教科內容의 구성 방향은 教科의 性格과 目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어떤 問題解決을 위한 主體的 思考能力의 함양이기 때문이다.

國民倫理教育의 性格은 대체로 政治教育 또는 政治社會化的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鄭世九는 國民倫理教育이 1973年~74年 사이에 社會科로부터 國民倫理科가 분리되어 政治教育의 임무를 분담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두科 教育의 일반목표가 모두 國家에 대한 애정 및 국가발전에의 능동적 참여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10) Ibid, P. 18.

## 大學「國民倫理 I」教科內容의 改善方案

모두 政治教育的 特性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sup>11)</sup> 그리고 車京守에 의하면 國民倫理教育이란 “國家의 存續과 發展을 위하여 國民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態度·知識·價値觀 등을 각 개인이 내면화하도록 하는 노력”<sup>12)</sup> 이라고 한다. 또한 柳炯鎭은 “國民倫理란 단순히 글자풀이대로 國民이 지켜야 할 道德的이고 規範에서 끝나는 學問이 아니다. 國民倫理는 國家社會의 存續과 發展을 위해서 필요한 價値觀과 世界觀을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습득시키고 바람직한 倫理的 規範들을 內面化시키며 그 生活을 통해서 그러한 훈련을 쌓아가게 하는 學問領域인 것이다.”<sup>13)</sup> 고 말한다. 이와같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는 國民倫理教育의 性格規定에 있어서 공통점은 國民倫理란 단순히 倫理教育이 아니라 國家의 存續과 發展에 기여할 수 있는 教育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國民倫理教育이 國家存續에 기여할 수 있는가? David Easton의 體制理論에 의하면 體制란 社會 안에서 價値들을 권위적으로 할당케하는 相互作用이며 구속력을 지닌 결정이 만들어지고 또 시행되는 過程, 다시 말해서 정치적으로 적절한 구성원의 요구가 구속력을 지닌 결정과 관련되는 행위로 전환되는 일련의 구조와 과정<sup>14)</sup> 이다. 그런데 그 전환과정은 어떤 體制類型이 구성원으로부터 支持를 이끌어 낼 수 있을 때 가능하게 된다. 즉 政治體는 要求와 支持의 投入이 다양한 구조와 과정을 거쳐 產出(權威的 決定과 行爲)로 변형되는 전환과정이기 때문에, 體制는 存續하기 위해서 產出과 投入에서 발생할 수 있는 困境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困境을 해소하고 구성원으로부터 政治共同體에 대한 무조건적 헌신적인 확산지지(diffuse support)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國民倫理教育이 담당하므로써 體制의 存續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15)</sup> 또한 政治發展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L. Pye나 G. Almond가 지적하고 있는

11) 鄭世九, 國民倫理教育論(教育科學社, 1983), PP.40 ~ 41.

12) 車京守, “國民精神教育의 學校級別 指導方向,” 國民精神教育 指導資料(大韓教科書株式會社, 1981), P. 136

13) 韓昇助, “政治社會學的 觀點에서 본 國民倫理學,” 國民倫理研究 Newsletter No 5 (1980.11.4), P. 19

14) David Easton, A Systems Analysis of Political Life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65), P. 222.

15) 鄭世九, 國民倫理教育論, PP. 12 - 13.

政治發展의 諸要素<sup>16)</sup>중에는 國民倫理教育과 직접·간접으로 관련지어 질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즉 政治體制의 構造의 分化和 專門化, 政治體制의 能力 등에 대해서는 國民倫理教育의 效果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政治體制와의 一體感, 政治統合, 政治文化의 世俗化 등에 대해서는 피교육자의 政治社會化와 政治思考能力의 伸장을 통해 國民倫理教育이 어느 정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sup>17)</sup>

그러므로 體制存續과 政治發展의 측면에서 國民倫理教育의 의의를 政治教育 또는 政治社會化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 그래서 韓昇助는 “國民倫理教育은 現代國家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의 政治·經濟·社會·文化의 질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불가결한 政治教育의 韓國의 形態”<sup>18)</sup>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國民倫理教育의 性格을 단순히 體制의 存續과 發展이란 측면에서만 論議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國家社會 안에서의 바람직한 生活態度는 불가피하게 바람직한 倫理的 價値觀과 道德的 判斷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國民倫理教育은 道德教育의 차원에서도 고찰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李奎浩는 “오늘날의 복잡한 政治社會 안에서는, 만약 政治教育이 완전히 道德教育에서 분리되면 바람직한 생활태도와 바람직한 行動樣式의 教育을 위해서는 의의가 없을 것이고, 또한 만약 道德教育이 政治教育에서 분리되어도 바람직한 行動規範의 教育을 위해서는 불충분할 것이기 때문에 政治教育과 道德教育의 결합이 요청된다”<sup>19)</sup> 고 말하고 있다. 즉 現代와 같이 복잡한 社會構造 안에서 인간이 바람직한 삶의 길을 찾고 바람직한 行動을 결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올바르게 合理的인 政治的 判斷과 倫理的 判斷을 함께 필요로 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韓國의 狀況에서는 급격한 近代化·工業化로 말미암아 傳統文化와 外來文化의 接變現象으로 인하여 多價値社會的인 價値混亂과 顛倒現象이 널리 만연되어 있는 실정이며, 科學技術文明 자체가 인간의 疎外 및 公害 등을 위시한 인간사회의 심각한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음에 따라 새로운 價値體系의 正립과 合理的인 道德的 判斷能力이 절실히 필

16) Lucian W. Pye, *Aspects of Political Development* (Boston: Little, Brown and Co, 1966) pp. 33 - 48 과 Gabriel A. Almond & G. Bingham - Powell, *Comparative Politics*, 2nd ed. (Boston: Little, Brown and Co, 1978), pp. 19 - 22 참조

17) 鄭世九, 國民倫理教育論, P. 17.

18) 韓昇助, “國民倫理教育의 回顧와 展望,” P. 140.

19) 李奎浩, “政治教育과 道德教育,” 國民倫理研究 Newsletter, 제 5 호 (1980.11), P. 4.



## 大學「國民倫理Ⅰ」教科內容의 改善方案

요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 道德教育이란 무엇인가? 鄭世九에 의하면 “道德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道理와 그에 준한 行爲의 基準을 밝힌 것이라고 한다면 道德教育은 인간의 道德的 價値를 중심으로 倫理的 德性을 함양하고 善한 일과 바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薰鍊, 지도하는 것”<sup>20)</sup>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道德教育의 方法에는 注入式 方案과 探究式 方案이 있다. 注入式 方案이란 어떤 價値나 態度를 피교육자에게 주입시키려는 것으로써, 어떤 價値對象을 일정한 방식으로 평가하도록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다.<sup>21)</sup> 즉 피교육자에게 善惡을 가르치는 것으로써, 「X는 옳고 Y는 나쁘다」라는 식의 것을 말한다. 이러한 방식의 함축적 의미는 教育者가 언제나 올바른 가치·규범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注入式 方案은 첫째로 價値葛藤의 문제는 좋은 價値와 나쁜가치의 구별의 문제가 아니라 좋은 價値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며, 둘째로는 成人이나 教育者 사이에서 道德的 價値에 대한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가치 혼란의 상황에서, 특히 마스크를 비롯한 操縱的 社會工學이 발달하고 있는 여건에서 바람직한 道德教育은 注入式보다는 개인 자신의 合理的 價値判斷을 내릴 수 있도록 薰鍊을 시켜, 자신이 意思決定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注入式 方案과 반대되는 探究式 方案은 價値를 일방적으로 주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피교육자로 하여금 그들 나름대로의 合理的 價値判斷을 내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探究式 方案은 문제가 되는 價値對象에 대해 피교육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合理的이고 옹호할 수 있는 價値判斷을 내리도록 도와주는 것이다.<sup>22)</sup> 이것은 價値明瞭化 또는 價値分析에 초점을 두는 教育이다. 그런데 國民倫理教育은, 이미 언급한 것처럼, 德目 또는 規範 자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德目에 대한 論議 즉 思考能力을 키우는 教育이어야 하기 때문에, 後者의 方案으로써 그 內容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즉 道德教育으로서의 國民倫理教育을 피교육자로 하여금 現代社會의 價値混亂과 葛藤 속에서 스스로 合理的인 價値判斷을 내릴 수 있는 能力의 향상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20) 鄭世九, 國民倫理教育論, P. 55.

21) 鄭世九, 價値·態度教育의 理論과 實際 (培英社, 1981), P. 78.

22) Ibid, P. 109.

그러면 政治教育·道德教育으로서의 國民倫理教育의 구체적인 目的은 무엇인가? 우선적으로 政治教育이란 學校의 영향하에서 한 개인이 그의 특수한 政治定向 즉 政治世界에 관한 知識, 感情, 評價를 습득하는 과정이며 동시에 公式的·非公式的 教育的 動因의 영향으로 한 사회가 그 政治文化를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것이다.<sup>23)</sup> 다시 말해서 政治教育은 現代國家의 國民으로서 올바른 合理的인 政治的 判斷과 生産的 參與를 할 수 있도록 個人 자신과 政治體制와의 관계를 깨닫게 하는 教育인 것이다. 그래서 韓昇助에 의하면, 政治教育으로서의 國民倫理教育은 우리나라의 政治發展과 民主化 그리고 福祉民主社會를 건설하며 平和統一의 目標를 앞당길 수 있는 國民의 政治態도와 精神姿勢 곧 올바른 現實認識, 感情狀態, 實踐意志를 국민대중의 마음 속에 內面化하는 작업이라고 규정한다. 그래서 그는 國民倫理教育은 ① 韓國民의 새로운 民族的 正體感의 확립 ② 愛國愛族하는 국민성격의 형성 ③ 統一된 民主福祉國家의 具現 ④ 世界平和와 人類文化에의 기여 라고 하는 目標를 달성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sup>24)</sup> 또한 李奎浩에 의하면, 國民倫理教育을 國家가 여러가지 難題들을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 國民들의 애국심과 충성심을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 심어주고 그리고 國家의 體制가 제대로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國民의 지지기반을 굳히기 위한 教育이라고 규정하면서, ① 體制의 正當性에 대한 信念의 확산 ② 愛國心과 忠誠心의 고취, ③ 國民의 지지기반의 형성이라는 目標를 내세우고 있다.<sup>25)</sup> 이외에도 여러 學者들에 의하여 다양한 目標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위에서 제시되고 있는 目標와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이 모든 目標들은 「전국국립사범대학 국민윤리교육과 협의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國民倫理教育의 一般的 目標 즉 “우리 민족국가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理念과 價値體系 및 規範體系 등 國家生活의 原理를 정립해가며, 이 원리와 일관된 바람직한 國民像을 형성해 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目標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러한 目標들에는 단순한 政治的 知識이나 感情을 넘어서 價値觀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왜냐하면 國民倫理教育은 道德教育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道德教育은 올바른 合理的인 倫理的 判斷을 내릴 수 있도록

23) 鄭世九, 國民倫理教育論, P. 35.

24) 韓昇助, “政治社會學的 觀點에서 본 國民倫理學,” P. 19.

25) 李奎浩, 國民倫理教育의 理論과 實際 (文佑社, 1982), P. 44.

## 大學「國民倫理 I」教科內容의 改善方案

하는 思考能力의 함양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道德教育으로서의 國民倫理教育은 價値觀教育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價値觀教育은 반드시 사회적·정치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教育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政治教育으로서의 國民倫理教育과 道德教育으로서의 國民倫理教育이 그 내용을 달리한다면 하나의 教科目으로서 體系의 一貫性을 상실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國民倫理教育은 政治教育과 道德教育이 상호 일관성있게 결합된 價値觀教育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의미의 國民倫理教育은 人間教育에 토대를 두고있다. 왜냐하면 價値觀教育은 어떠한 人間을 育成하느냐를 문제의 핵심으로 삼기 때문이다. 즉 人間教育의 차원에서 國民倫理教育을 규정할 때만이 政治教育과 道德教育의 종합으로서의 國民倫理教育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國家·社會의 측면에서 政治教育은 社會化 過程을 통해 형성되는 人間의 기본적인 性格을 문제삼고 있기에 人間教育이며, 個人的 측면에서 道德教育은 共同生活의 場에서 발생하는 葛藤을 해결할 수 있는 合理的 價値判斷 能力을 문제삼기에 또한 人間教育이다. 바로 여기에 人間教育으로서의 國民倫理教育이 「바람직한 國民像의 형성」이라는 목표를 지향하면서도, 단순히 국가 구성원들로 하여금 體制適應만을 위한 教育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人間教育은 기존 사회체제에 적응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회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해결하고 필요하면 기존 사회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能力의 배양에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sup>26)</sup> 따라서 國民倫理教育은 한 사회내에 內在하고 있는 존재이면서도 未來에 대한 희망으로 그 사회를 늘 초월하려고 하는 社會的 存在로서의 人間을 그 教育的 前提로서 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한 前提위에서 國民倫理教育은 現代社會의 價値葛藤의 問題를 韓國이라는 특정한 歷史와 政治的 狀況에서 合理的으로 해결할 수 있는 思考能力을 배양키므로써 主體的 存在로서의 바람직한 國民像을 형성할 수 있고, 나아가 國民의 合意에 토대를 둔 國家理念의 定立이라는 目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IV. 國民倫理 I 教科內容의 試案

앞에서 論議한 것처럼 오늘날의 國民倫理教育의 諸問題를 止揚하고 그 性格과

26) 李奎浩, 大學에서의 人間教育 (大韓教科書株式會社, 1983), P.14.

목적에 맞도록 國民倫理 I 教科內容을 구성한다면 다음과 같다.

### 1. 學習目標 (教科目 設置目的)

國民倫理教育의 目的은 바람직한 國民像의 확립과 國家理念의 정립에 있다. 이러한 目標은 人間의 本質에 대한 問題意識에서 출발하여 現代 (韓國) 社會의 諸問題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개인의 主體的 判斷能力의 함양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즉 共同體意識을 토대로 하는 개인의 主體的 自覺과 行動이 民族主體意識과 國家的 正統性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國民倫理 I 教育의 目標로서 설정할 수 있으며, 이 目標에 따라 國民倫理 I 的 教科內容을 구성할 수 있다.

### 2. 教科內容 概要

#### 제 1 장. 國民倫理教育의 意義

- 제 1 절. 國民倫理教育과 體制存續
- 제 2 절. 國民倫理教育과 政治發展
- 제 3 절. 國民倫理教育과 價値判斷

#### 제 2 장. 人間과 社會

- 제 1 절. 人間의 本性
- 제 2 절. 個人主義와 全體主義
- 제 3 절. 現件社會의 特徵과 人間疎外
- 제 4 절. 價値觀의 混亂과 定立
- 제 5 절. 社會의 不平等과 經濟倫理

#### 제 3 장. 主體性과 傳統思想

- 제 1 절. 民族史 再認識의 必要性
- 제 2 절. 民族主義의 本質
- 제 3 절. 韓國民族主義의 特性과 課題
- 제 4 절. 傳統倫理의 意義
- 제 5 절. 傳統思想의 基本性格과 檀君神話
- 제 6 절. 선비精神과 主體性
- 제 7 절. 現代 韓國人의 意識構造
- 제 8 절. 知識人의 役割과 使命

### 3. 單元別 教科內容 概要

#### 제 1 장. 國民倫理教育의 意義

國民倫理教育의 가장 큰 저해요인은 認識의 부족이다. 따라서 이 章의 전체적 目的은 國民倫理教育에 대한 學生들의 認識을 심화시켜주는 것이다. 모든 體制는 단순히 개인들의 집합으로 생각하므로써 體制의 存續과 發展에 개인이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바를 명확히 알고 있지 않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價値論的인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非合理的인 선택과 주장을 하게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體制와 構成員의 相互依存的 關係를 파악하게 하고 倫理的 行爲의 目的과 價値判斷의 문제를 스스로 검토케 한다.

#### 單元學習 1. 國民倫理教育과 體制存續

##### 1) 單元學習內容 概要

모든 人間이 生命의 保存과 永續을 바라는 것처럼, 모든 政治體制도 그 體制의 存續을 꾀한다. 따라서 韓國의 政治共同體가 存續하기 위해서 必要한 要件들과 그 要件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國民倫理教育의 役割을 검토하므로써 國民倫理教育의 必要性을 認識하게 한다.

##### 2) 單元學習目標

- ① D. Easton의 體制理論은 무엇인가?
- ② 韓國의 政治體系에 重壓을 유발하는 요인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 ③ 重壓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國民倫理教育의 役割은 무엇인가?

##### 3) 教科活動

기 간 : 제 1 주

방 법 : 講義 (제 1 일), 發表와 討論 (제 2 일)

토론주제 : 韓國政治體制的 重壓要因과 國民倫理의 課題

##### 4) 참고도서

- 鄭世九, 國民倫理教育論 (教育科學社)
- R. E. Dawson, et al, 政治社會化, 鄭世九 譯 (法文社)
- 李容弼, 政治體系論 (大旺社)
- 國民倫理學會 編, 政治教育 (螢雪出版社)
- D. Easton, A Systems Analysis of Political Life. (New York : John

Wiley & Sons, Inc.)

**單元學習 2. 國民倫理教育和 政治發展**

1) 單元學習內容 概要

제 2 차 대전 후 많은 신생국들은 國家 및 社會의 近代化 作業과 國家建設의 일환으로 政治發展을 추진해 왔다. 특히 우리나라도 제 5 공화국 이후 民主主義의 토착화를 최우선의 국가지표로 삼아 政治發展을 기하고 있다. 따라서 政治發展이란 개념의 內包와 外延을 이해하고 韓國에서의 政治發展의 沮害要因을 규명하여 그 해결을 위한 課題가 國民倫理教育和 어떤 關係에 있는가를 검토하게 한다.

2) 單元學習目標

- ① 政治發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② 政治文化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③ 韓國의 政治文化는 무엇인가?
- ④ 政治發展을 위한 國民倫理教育의 課題는 무엇인가?

3) 教科活動

기 간 : 제 2 주

활 동 : 제 1 주와 同一

토론주제 : 韓國의 政治發展 沮害要因과 國民倫理教育의 역할

4) 참고도서

- 鄭世九, 國民倫理教育論 (教育科學社)
- R.E. Dawson, et al, 政治社會化, 鄭世九 譯 (法文社)
- 國民倫理學會 編, 政治教育 (螢雪出版社)
- 李克燦, 政治學 (法文社)
- 李洪九, “韓國의 政治文化와 政治發展,” 韓國政治學會報, 11 집 (1977)
- G. Almond & G. Bingham Powell, Comparative Politics, (Boston : Little, Brown & Co, 1978)
- Lucian W. Pye, Aspects of Political Development ( Boston : Little, Brown & Co, 1966 )
- D. Kavanagh, Political Culture (London : MacMillan, 1972)

**單元學習 3. 國民倫理教育和 價值判斷**

1) 單元學習內容 概要

## 大學「國民倫理 I」教科內容의 改善方案

人間的 行爲와 思惟에는 언제나 價値의 문제가 수반된다. 現代社會가 多價値社會로 변모하고, 더우기 한국은 급격한 近代化와 工業化로, 傳統文化와 外來文化의 接變現象으로 인하여 價値葛藤의 문제가 중요한 것으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現代社會에서 個人的 主體性을 확립하고 나아가 人生觀·世界觀 등의 價値觀을 정립하는 조건은 올바르고 合理的인 價値判斷 能力이 된다. 그러므로 倫理的 價値와 規範들을 내면화시키는 諸理論들을 검토하면서 合理的 價値判斷 能力을 습득하게 한다.

### 2) 單元學習目標

- ① 價値는 절대적인가 상대적인가?
- ② 倫理的 規範의 內面化 方式은 무엇인가? (社會化理論, 相互作用理論)
- ③ 判斷의 合理性은 어떻게 얻어지는가?

### 3) 教科活動

기 간 : 제 3 주

활 동 : 제 1 주와 同一

토론주제 : 價値의 絕對性과 相對性

### 4) 참고도서

- 鄭世九, 國民倫理教育論 (敎育科學社)
- 鄭世九, 探究授業 (培英社)
- 李奎浩, 國民倫理教育의 理論과 實際 (文佑社)
- 金泰吉, 倫理學 (博英社)
- 蘇光熙外 2인, 哲學의 諸問題 (志學社)
- William K. Frankena, Ethics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 제 2 장. 人間과 社會

제 1 장에서 논의한 體制存續, 政治發展, 價値判斷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社會의 구성원인 人間の 行爲를 통해서 社會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人間 자신 의 本질과 本성에서 부터 출발한 社會와 國家 및 우리의 역사적 현실에 대한 깊은 관심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관심을 조성하고, 그것을 기초로 個人主義와 全體主義, 調和와 葛藤 및 現代社會의 諸問題와 그 해결책에 대해 주체적 인 判斷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 單元學習 1. 人間の 本性

1) 單元學習內容 概要

人間에 대한 哲學的, 社會學的, 生物學的, 心理學的, 精神分析學的 諸見解들을 Scheler, Gehlen, Freud, Weber, Skinner 등의 理論을 통해 人間の 本質과 社會와의 關係를 비교·검토한다. 그러므로써 인간의 不安全性과 그에 따른 人間の 社會性에 着점을 두어 主體的 人間理解에 접근해 간다.

2) 單元學習目標

- ① 人間の 生物學的 特性은 무엇인가?
- ② 心理學 및 精神分析學에서 보는 人間論의 特性은 무엇인가?
- ③ 人間の 社會性은 무엇인가?
- ④ 哲學的 人間理解의 着점은 무엇인가?

3) 教科活動

기간 : 제 4 주

활동 : 제 1 주와 同一

토론주제 : 주체적 인간은 어떤 것인가?

4) 참고도서

- Michael Landmann, 哲學的 人間學, 許在允 譯 (螢雪)
- M. Scheler, 人間の 地位, 崔載喜 譯 (博英社)
- Perry LeFevre, 現代의 人間理解, 李鍾聲 譯 (大韓基督教書會)
- Leslie Stevenson, 人間の 本질에 관한 일곱가지 理論, 임철규 譯 (종로서적)
- 梁創三, 反主流의 人間論 (大英社)

**單元學習 2 . 個人主義와 全體主義**

1) 單元學習內容 概要

人間과 社會의 關係는 기본적으로 個人과 全體의 關係이다. 이러한 關係에서 어느 일방이 타방보다 優위에 있다는 주장들의 論理와 派生되는 問題點을 살펴보고, 따라서 現代 우리사회에서 바람직한 關係는 무엇인지 검토하게 한다.

2) 單元學習目標

- ① 個人主義的 社會觀의 주장근거는 무엇인가?
- ② 全體主義的 社會觀의 주장근거는 무엇인가?
- ③ 個人主義와 全體主義의 問題點은 무엇인가?



## 大學「國民倫理 I」教科內容의 改善方案

④ 우리에게 바람직한 人間과 社會의 關係는 무엇인가?

### 3) 教科活動

기 간: 제 5 주

활 동: 제 1 주와 同一

토론주제: 바람직한 人間과 社會의 關係

### 4) 참고도서

- J. Rousseau, 社會契約論, 李佳炯 譯 (乙酉)
- B. Russell, 西洋의 智慧, 鄭鳳和 譯 (乙酉)
- G. H. Sabine, 政治思想史, 閔丙台 譯 (乙酉)
- 蘇光熙外, 哲學의 諸問題 (志學社)
- L. Schapiro, Totalitarianism (New York: Praeger, 1972)
- H. Arendt,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New York: Meridian, 1958)
- “Totalitarianism”,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 單元學習 3. 現代社會의 特性과 疎外

### 1) 單元學習內容 概要

現代產業社會는 한편으로 人間의 欲求充足의 범위를 확대하므로써 人間解放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데 반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人間의 非人間化를 초래하는 人間操縱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現代產業社會의 양면성을 살펴보고, 파생되는 人間疎外의 원인을 규명하며, 그 해결을 위한 倫理的 課題를 검토한다.

### 2) 單元學習目標

- ① 現代社會의 特性은 무엇인가?
- ② 疎外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③ 人間疎外를 유발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 ④ 疎外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 3) 教科活動

기 간: 제 6 주

활 동: 제 1 주와 同一

토론주제: 人間性 恢復을 위한 倫理的 課題는 무엇인가?

### 4) 참고도서

- K. E. Boulding, 二十世紀의 意味, 金鳳鎬 譯, (三星文化社)

## 이데올로기 研究論叢

- K.Lorenz, 現代의 大罪, 金淙鎬 譯 (三星文化社)
- E.Fromm, 건전한 사회, 文祥得 外譯 (博英社)
- F.Pappenheim, 現代인과 疎外, 진덕규 譯 (학문과 사상사)
- 鄭文吉, 疎外論 研究 (문학과 지성사)

### 單元學習 4. 價値觀의 混亂과 定立

#### 1) 單元學習內容 概要

價値觀이란 특정한 行爲樣式이나 生活의 目的狀態에 대한 지속적인 信念들의 體系이며, 이것에 의해 인간은 社會의 現상을 판단한다. 특히 國家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信念 즉 國家觀은 國家의 正當性 및 국가에 의해 보장되는 自由의 의미를 결정한다. 따라서 現代社會의 價値觀의 混亂을 야기하는 原因을 규명하고, 우리 社會가 바라는 國家觀이 어떤 것인가를 성찰하도록 한다.

#### 2) 單元學習目標

- ① 價値觀은 무엇이며, 왜 必要한가?
- ② 自由民主主義 國家觀의 特性은 무엇인가?
- ③ 共產主義 國家觀의 特性은 무엇인가?

#### 3) 教科活動

기 간: 제 7 주

활 동: 제 1 주와 동일

토론주제: 바람직한 人生觀과 國家觀

#### 4) 참고도서

- 金泰吉, 人間回復序章 (三星文化社)
- 金泰吉, 새로운 價値觀의 지향 (民衆書館)
- 李奎浩, 國民倫理教育의 理論과 實際 (文佑社)
- F.M.Watkins, 근대정치사상사, 李洪九 譯 (乙酉文化社)
- 金泰吉, 韓國大學生의 價値觀 (一潮閣)
- 李永鎬, 韓國人의 價値觀 (一志社)

### 單元學習 5. 社會的 不平等과 經濟倫理

#### 1) 單元學習內容 概要

經濟成長의 모순으로 나타나는 所得分配의 問題와 그에 따른 社會的 不平等의 문제를 검토하며, 經濟發展과 倫理의 깊은 관련성을 인식케 한다. 즉 우리가 지

## 大學「國民倫理 I」教科內容의 改善方案

향하고 있는 經濟成長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均등하게 돌아가는 福祉國家 또는 正義社會의 실현과 關係해서 經濟生活 전반에 적용되어야 할 經濟行爲의 自由, 公平, 合理性, 協力, 節約, 公共心 등의 經濟倫理를 생각해보도록 한다.

### 2) 單元學習目標

- ① 福祉國家 및 正義社會는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가?
- ② 社會의 不平等의 原因은 무엇인가?
- ③ 우리 經濟生活에 필요한 倫理的 價値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3) 教科活動

기 간: 제 8 주

활 동: 제 1 주와 동일

토론주제: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倫理的 課題

### 4) 참고도서

- 李奎浩, 國民倫理教育의 理論과 實際 (文佑社)
- 李奎浩·車仁錫, 現代社會의 哲學的 理解 (培英社)
- 金瓊東, 發展의 社會學 (文學과 知性社)
- 韓國社會科學研究所 編, 韓國社會論 (民音社)
- R.H. tawney, 平等, 金鍾澈 譯 (한길사)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編, 國民倫理學 (博英社)

## 제 3 장. 民族主体性和 傳統思想

民族的 性格은 그 나라의 역사적 經驗의 산물이다. 특히 民族的 主体性을 확립하는 효과적인 길은 망각되고 의곡된 민주적 전통을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민족적 긍지를 회복하는 일이다. 따라서 한국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나타나고 발전되었던 傳統思想의 主體的 意識을 드러내어 民族的 正體感을 형성하도록 한다. 현재의 역사적 상황에서 우리는 누구이며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검토하게 하므로써 오늘날 우리가 처한 국제적, 국내적인 諸問題를 主體的으로 해결할 수 있는 力量을 배양시킨다.

### 單元學習 1. 民族史再認識의 必要性

#### 1) 單元學習內容 概要

民族史는 國民에게 있어서 가장 기초적 敎養이며 국민으로서 행동하는 중요한

## 이데올로기 研究論叢

근본을 이루는 價値觀이다. 따라서 우리의 歷史와 文化에 대한 잘못된 認識이 약 소민족으로서의 劣等意識과 敗北感 및 自虐感을 어떻게 조장하였는가를 검토하게 한다. 그러므로써 의곡·날조된 韓國史를 바로잡아, 우리 자신의 힘으로 정리되고 체계화된 民族史 즉 韓國民族의 主體意識에 입각한 民族史觀의 定立을 위한 課題가 우리에게 있음을 자각하게 한다.

### 2) 單元學習目標

- ① 植民史觀이란 무엇이며 그 虛構性은 어디에 있는가?
- ② 植民史觀에 의해 의곡된 우리의 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③ 民族史를 定立하기 위한 우리의 시각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 3) 教科活動

기 간 : 제 9 주

활 동 : 제 1 주와 동일

토론주제 : 植民史觀과 우리의 態度

### 4) 참고도서

- 李基白, 韓國史新論 (一潮閣)
- 李基白, “事大主義論의 재검토”思想界 (1965.6)
- 閔斗基, “事大主義論”新世界 (1963.6)
- 高永復, “社會行動으로서의 事大主義”新世界 (1963.6)
- 黃性模, “民族성과 地理風土的 條件”新世界 (1963.4)
- 全海宗, “韓國史를 어떻게 보는가.”新東亞 (1966.8)

## 單元學習 2 . 民族主義의 本質

### 1) 單元學習內容 概要

現代 國際社會에서는 전세계적 普遍文化에 의한 개별국가 단위의 國家利益이 더욱 중요하게 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추세의 國際社會 속에서 우리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內的 統合을 이룩하고 國家的 試鍊을 극복할 수 있는 精神의 指標로서의 民族主義의 觀點에 입각해야할 必要性을 검토하게 한다. 그리고 民族主義에 대한 概念과 性格 및 展開過程을 검토한다.

### 2) 單元學習目標

- ① 現代社會에서 民族主義가 줄 수 있는 意義는 무엇인가?
- ② 民族의 구성요인은 무엇인가?

## 大學「國民倫理 I」教科內容의 改善方案

- ③ 西歐 民族主義의 特性은 무엇인가?
- ④ 新生國 民族主義의 特性은 무엇인가?

### 3) 教科活動

기 간: 제 10 주

활 동: 제 1 주와 동일

토론주제: 民族意識과 主體性

### 4) 참고도서

- 白樂晴 編, 民族主義란 무엇인가? (創作과 批評社)
- 陳德奎 編, 韓國의 民族主義 (現代思想社)
- 차기벽, 한국 민족주의의 이념과 실태 (까치)
- H.Kohn, 民族主義 時代, 陳德奎 譯 (博英社)
- F.M.Watkins, 근대정치사상사, 李洪九 譯 (乙酉文化社)
- E.H.Carr, Nationalism and after (London: MacMillan, 1968)

## 單元學習 3. 韓國 民族主義의 特性과 課題

### 1) 單元學習內容 概要

韓國 民族主義의 역사적 展開過程을 살펴보고 그 特性을 검토하게 한다. 특히 東學運動과 三·一運動의 民族史的 意義를 살펴본다. 또한 現代의 新植民主主義의 침투를 극복하기 위한 民族主義의 正統性을 확립할 必要性和 課題를 論議한다.

### 2) 單元學習目標

- ① 韓國 民族主義 運動의 展開過程과 特性을 說明한다.
- ② 東學運動의 民族史的 意義는 무엇인가?
- ③ 現代 韓國 民族主義의 課題는 무엇인가?

### 3) 教科活動

기 간: 제 11 주

활 동: 제 1 주와 동일

토론주제: 韓國 民族主義의 課題

### 4) 참고도서

- 陳德奎, 編, 韓國의 民族主義 (現代思想社)
- 白樂晴, 編, 民族主義란 무엇인가 (創作과 批評社)
- 차기벽, 한국 민족주의의 이념과 실태 (까치)

## 이데올로기 研究論叢

- 趙芝薰, 韓國文化史序說 (探求堂)
- 劉明鍾, 韓國哲學史 (日新社)
- 李家源外 編, 韓國學研究入門 (知識產業社)

### 單元學習 4 . 傳統倫理의 意義

#### 1) 單元學習內容 概要

傳統倫理에 대한 先入見의 否定的 견해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傳統的 倫理觀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한다. 傳統的 倫理의 德目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倫理意識의 기본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논의한다. 또한 現代社會의 諸問題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해결방식으로서 도움이 될 수 있는 傳統倫理의 意義를 찾아본다.

#### 2) 單元學習目標

- ① 傳統倫理의 德目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② 傳統的 倫理觀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 ③ 傳統的 倫理觀의 現代的 意義는 무엇인가?

#### 3) 教科活動

기 간 : 제 12 주

활 동 : 제 1 주와 동일

토론주제 : 전통적 윤리의 현대적 의의

#### 4) 참고도서

- 金泰吉, 韓國人の 價値觀 (문음사)
- 金泰吉, 人間回復序章 (三星文庫)
- 大學國民倫理編纂委員會 編, 現代社會와 國民倫理 (博英社)
- 安啓賢, “新羅의 世俗五戒와 國家觀” 韓國思想叢書 (景仁文化社)
- 金益洙, 韓國의 孝思想 (中央印刷公社)

### 單元學習 5 . 傳統思想의 基本性格과 檀君神話

#### 1) 單元學習內容 概要

韓國의 傳統思想을 개괄하므로써 韓國人이 지향했던 傳統的 思想의 性格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民族的 自負心과 역사적 자기확인의 계기로 삼도록 한다. 특히 韓民族이라는 역사적 주체의 精神的 源泉을 고대의 檀君神話와 民俗을 통하여 검

## 大學「國民倫理 I」教科內容의 改善方案

토하고, 佛敎·儒敎·東學의 사상적 흐름 속에서 우리의 고유정신이 外來思想과 상호 교섭·발전하였던 主體的 측면을 살펴본다.

### 2) 單元學習目標

- ① 民族精神의 源泉은 무엇인가?
- ② 檀君神話의 現代의 意義는 무엇인가?
- ③ 傳統思想의 主體의 性格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 3) 教科活動

기 간: 제 13 주

활 동: 제 1 주와 동일

토론주제: 傳統思想의 主體性

### 4) 참고도서

- 朴鍾鴻, 지성과 모색 (博英社)
- 李御寧, 韓國人의 神話 (瑞文堂)
- 李相日 外, 韓國思想의 源泉 (博英社)
- 洪一植, 韓國傳統文化試論 (高大出版部)
- 李乙浩 外, 韓國思想의 深層研究 (宇石)
- 催昌圭, 韓國의 思想 (瑞文文庫)

## 單元學習 6. 선비精神과 主體性

### 1) 單元學習內容 概要

참다운 자기존재와 共同體의 유지에 있어서 主體性이 중요한 전제임을 검토한다. 외적 도전이 강할 때 自存의 노력으로 主體性의 정립을 강조했던 역사적 사실을 살펴보고 우리 민족이 추구했던 價値意識이 선비의 人間像으로 나타남을 논의한다. 선비의 精神이 개인의 人生과 민족에 미친 공헌을 검토하며, 現代에 줄 수 있는 意義를 개인적 국가적 측면에서 검토한다.

### 2) 單元學習目標

- ① 共同體의 유지와 개인적 人生에 있어서 왜 主體性이 요구되는가?
- ② 선비精神이란 무엇인가?
- ③ 선비精神이 現代에 줄 수 있는 意義는 무엇인가?

### 3) 教科活動

기 간: 제 14 주

## 이데올로기 研究論叢

활 동 : 제 1 주와 동일

토론주제 : 선비정신의 의의

### 4) 참고도서

- 朴鍾鴻, 자각과 의욕 (博英社)
- 金泰吉, 韓國人の 價値觀 (문음사)
- 李乙浩 外, 韓國思想의 深層研究 (宇石)
- 金仁濟, 現代社會와 國民倫理 (日新社)
- 崔昌圭, 近代韓國政治思想史 (一潮閣)

## 單元學習 7. 現代 韓國人の 意識構造

### 1) 單元學習內容 概要

現代 韓國人の 意識構造의 기본 형태를 논의하고 반성하면서 現代에 있어서 요구되는 바람직한 意識構造의 방향을 모색한다. 오늘날 우리의 意識構造의 실상을 이해하려면 時代的 條件과 안목속에서 비로소 가능성을 밝히면서 서열과 감투 및 권위 의식 등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서도 화해적 동질성이 유지될 수 있었던 부분을 규명한다. 따라서 우리의 意識構造를 긍정과 부정의 측면에서 종합적인 이해를 시도한다.

### 2) 單元學習目標

- ① 우리의 意識構造의 기본형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② 現代 韓國人の 意識構造의 실상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
- ③ 바람직한 意識構造의 개선방향은 어떤 것인가?

### 3) 教科活動

기 간 : 제 15 주

활 동 : 제 1 주와 동일

토론주제 : 한국인의 의식구조와 개선방향

### 4) 참고도서

- 崔在錫, 韓國人の 社會的 性格 (民潮社)
- 尹泰林, 의식구조상으로 본 韓國人 (玄岩社)
- 李圭泰, 韓國人の 意識構造 (신원문화사)
- 李永鎭, 韓國人の 價値觀 (一志社)



## 大學「國民倫理 I」教科內容의 改善方案

### 單元學習 8. 知識人의 役割과 使命

#### 1) 單元學習內容 概要

이 單元은 國民倫理 I 강의의 결론이 된다. 즉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모든 單元의 내용은 知識人을 주체로 하여 검토하게 된다. 그래서 知識人의 主體的 力量은 主體的 自我의 형성과 역사적 주체의 認識 그리고 社會속에서의 行爲主體意識에 의해 함양됨을 강조한다. 특히 社會에서 大學人의 위치를 검토하기 위해 知識人의 역할과 사명을 논의하고 主體性의 의미를 재검토한다.

#### 2) 單元學習目標

- ① 知識人이 공동체에서 수행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 ② 知識人과 主體性은 어떤 관계인가?
- ③ 國民倫理教育의 目的을 위해 知識人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 3) 教科活動

기 간 : 제 16 주

활 동 : 제 1 주와 동일

토론주제 : 민족 생존을 위한 知識人의 사명

#### 4) 참고도서

- 朴鍾鴻, 철학개설 (博英社)
- 金泰吉, 韓國人의 價値觀 (문음사)
- 金泰吉, 人間回復序章 (三星文庫)
- 김성태, 한국인의 주체성 (고대출판부)

## V 結 論

國民倫理教育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道德教育과 政治教育이 상호 일관성있게 결합된 人間教育이다. 그리고 그것의 목적은 바람직한 國民像의 확립에 있으며, 궁극적으로 國家理念의 정립을 지향하고 있다.

여기서 國民倫理教育의 목적이 되는 바람직한 國民像이란 구체적으로 개인과 社會의 諸問題를 직시하고 해결할 수 있는 態도와 能力을 지닌 主體的인 人間의 모습으로 규정하였다. 왜냐하면 國民倫理教育은 主體的인 人間 즉 既存社會體制에 안주하는 人間이 아니라, 한 社會속에 존재하면서도 그 社會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人間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며, 나아가 그러한 主體

## 이데올로기 研究論叢

的 人間을 양성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에서 제시한 國民倫理 I의 教科內容은 우리가 처해있는 제반 개인적·사회적 問題들을 검토해 봄으로써 그 해결을 위해 主體的으로 대처할 수 있는 人間의 형성에 초점을 두어 具案하였다. 즉 앞에서 시사한 것처럼 우리의 國家理念을 정립할 수 있는 合理的이고 주체적인 思考能力의 함양이라는 방향에서 구성해 본 것이다.

또한 이와같이 구안된 教科內容은 國民倫理教育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주체적인 삶을 인정한다면 그러한 삶을 다각적으로 啓發해 줄 수 있는 教科目的 必要性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國民倫理는 主體的인 思考能力, 主體的인 人間의 삶을 지향하기 때문에 國民倫理教育에 대한 인식부족이라는 문제도 자연히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